

포트묘 이양 친환경 벼 평가회

생육상태 정도 평가 · 포트묘 이양 친환경 벼 재배 기술 보급 위해 마련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금과면 만촌마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트묘 이양 친환경 벼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장평가회는 올해 포트묘 이양을 실시한 벼의 생육상태 정도를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은 포트묘 이양 기술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군은 올해 금과 호치, 만촌, 방축에서 약 50ha, 동계면에 8ha, 유등면에 10ha 등 총 68ha에 포트묘 이양을 추진해 성공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포트묘이양법에 대한 성공 여부를 농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 포트묘 이양 친환경 벼 재배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회에서 설명자로 나선 만촌마을 이장 김춘석(54)씨는 "지난해부터 포트묘이양법을 활용해 친환경 벼를 심었다"면서 "비료나 어떤 농약도 쓰지 않았는데도 벼 줄기가 굵고 알이 잘 여물었다. 특히 벼 쓰러짐 현상이 하나도 없어 많은 양의 추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에는 특히 강점이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기술보급에 나서줄 것"도 강조했다.

포트묘 농법은 포트 묘묘상자에 포트당 2~3알씩 볍씨를 파종하고 35~40일 정도 키운 튼튼한 성묘(25~30cm)를 포트묘 이양기로 50주 내외로 넓게 심는 농법이다.

이 방법은 이양 후 활착이 빨라 초기 생육이 왕성하며 줄기 사이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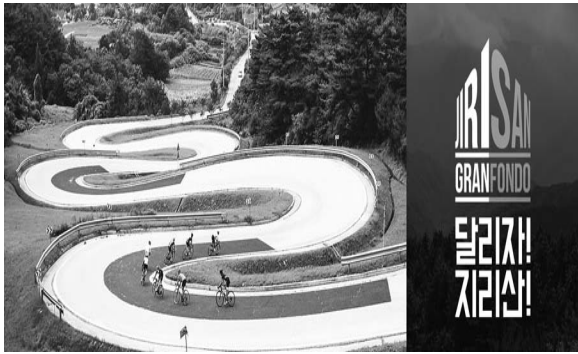
간이 넓어 통풍이 잘되고 햇볕 투과량이 증가해 줄기가 굵고 뿌리가 많이 발달한 뿐만 아니라 도복과 병해충에 강해 품질 좋은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양하면서 동시에 깊은 물대기를 할 수 있어 잡초발생 억제에 탁월하고 우렁이에 의한 삽식 피해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에 최적화된 벼 재배 방법이다.

특히 기존 육묘방법에 비해 볍씨나 상토량이 절반 이하로 줄고 잡초발생 억제 효과로 제초에 투입되는 비용도 줄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약 100ha정도로 포트묘 이양 벼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개최

내달 2일 남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출발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제1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가 내달 2일 남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지리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탈리아어로 긴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의 그란폰도 종목(158km)과 스페인어로 절반을 뜻하는 메디오포도(88km) 두 종목에 걸쳐 진행되는 금번 대회는 신청접수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자전거 동호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열띤 성원에 대해 금번 대회를 공동주최한 남원MTB와 남원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해발 1,170m 정령기 구간을 오르는 등산악 구간이 많아 완주

시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1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는 그란폰도 1,030명, 메디오포도 520명 등 1,55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구급차 배치 및 주요구간 안전요원 배치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선수단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대회당일 뿐만 아니라 사전 답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남원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적의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지원 및 관심을 통해 더 많은 동호인들이 지리산 및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고인돌 및 운곡습지 등 지역 내 지질자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

세계지질공원의 현장답사 · 보존 · 관광 · 교육 · 노하우 · 우수사례 공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고인돌 및 운곡습지 등 지역 내 지질자원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영국 리비에라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창조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32개국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국립공원사무소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8개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각 지질공원의 개요 및 관리현황 등을 설명하고 한국 지질공원을 홍보했고 버렌클리프-모허와 라비에라 세계지질공원 등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세계지질공원의 보존, 관광, 교육 등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지질공원 관련 정부 및 전문가간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을 통해 군은 지역 내 지질자원을 홍보하고 세계지질공원간 국제네트워크 강화, 타 지역 지질공원 우수사례 공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벤치마킹을 통한 지질,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교류와 세계지질공원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과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고창군은 지역에 산재한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작성해 전북도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후,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현장답사 및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 통과되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지역특산물 특특튀는 홍보 '눈길'

서울역 관광명소 페스티벌에서

순창군이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역 맞이방에서 열린 관광명소 페스티벌에서 순창장류축제와 지역특산품에 대한 특특튀는 홍보를 진행해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페스티벌은 가을철 관광주년을 맞이해 지자체 홍보와 철도를 이용한 여행상품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에서 준비한 행사로 17개 기관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순창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순창고추장마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순창장류축제 홍보에 집중했다. 올해 장류축제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가족 참여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직원들을 리플릿과 축제 프로그램을 방문객에게 설명하며 꼭 한번 방문해 줄 것을 설득했다.

또 순창고추장 등 지역특산물 전시 홍보장도 큰 인기를 끌었다. 방문객들은 전통장류의 중심지 순창에서 가져온 고추장, 된장 등을 먹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순창=이영원 기자

특히 가을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절경을 자랑하는 강천산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군은 한 장의 카드로 전라남도 도내 14개 시·군의 제휴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 시내버스 자유이용,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이용, 맛집, 숙박시설, 공연(체험) 등이 특별 할인되는 국내최초의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권 홍보도 병행하였다.

설주원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대도시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아와 가을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여행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며 "관광객들에게 순창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체험상품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코레일과 함께하는 순창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만명 이상이 코레일 기차여행을 통해 순창을 방문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주민자치 경연대회의 간담회

준비상황 점검 개선방안 논의 등

임실군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도 주민자치위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7일 임실을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임실N치즈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민자치 경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박재만 임실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임실N치즈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민이 하나가 되어 준비한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끝까지 이끌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주민자치경연대회는 오는 10

월 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 소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수상

박우정 고창군수가 '2016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상했다.

박 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를 표방하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청정 고창발전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에서 지방자치행정 공로부분 대상 받았다.

군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연생태체험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건립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해양생태벨트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에

함께 재해위험지구정비와 상습침수지역 해소 등 국민행복 등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와 힘을 모아 아름답고 청정한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고 꼭 한번 와 보고 싶은 고창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고창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2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은 (주)임실세기뉴스와 민주신문이 주최하고 워싱턴 미주방송, KTN뉴스, 미주 한국TV방송, 대한언론인연맹, 한국주간사지회협회가 후원한 상이다.

이 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분야별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한 혁신리더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어린이 독서캠프

임실군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박 2일 '삼시세책 어린이 독서캠프'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독서캠프는 스마트폰 및 게임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어린이에게 도서관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독서의 재미를 일깨우고자 초등학급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첫째 날 삼시세책 책 제목 맞추기, 책 제목 끝말잇기, 독서 골든벨 등의 다채로운 독서활동과 '미담을 나온 입밖' 영화 감상, 불 꺼진 도서관 탐방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어, 서가 속 책 찾기 대결을 통해 잡자리 북북북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은 도서관 산책 및 지도 그리기, 아침독서 등으로 마무리 된다.

군 관계자는 "도서관이 어린이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독서캠프를 계획했다"며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느끼고 올바른 독서생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독서의 달을 맞아 연체자 부활, 다독자 선정, 추석맞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내달에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법률 강연 '시민포스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립도서관 (☎63-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고창경찰, 교통사고예방 홍보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 사는 29일 오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차를 보고 걸어' 홍보 동영상 활용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홍보 동영상은 경찰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습관을 위하여 '길을 건널 때 차로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차를 보고, 뛰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걸으라'는 동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요로 제작되어 유치원생 모두 쉽게 동영상을 보면서 동요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소양을 터득하였다.

고창회 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어린이가 차를 보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인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널 때는 차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차를 확인하고, 뛰지 말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등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에 맞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야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회의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29일 지역 안전자수 등급 개선을 위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TF팀 회의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시청 교통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 부서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안전자수에서 등급이 낮게 평가된 4개 분야(교통, 화재, 지상, 감염병)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안전자수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1월에 공표되는 수치로, 전전도의 각종 통계를 활용, 차질단체별 7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남원시는 개선이 시급한 4개 분야에 대해 TF팀을 구성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망자수 14명을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 안전점검의 날, 민간에출단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